

각박한 현대 사회 속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이유 없는 사랑이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무한한 사랑을 준다.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인간 또한 동물에게 사랑을 준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며, 머무를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까?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애초에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을 관계이다. 영화 ‘판타스틱 플래닛’에서는 ‘외계인의 반려동물이 되어버린 인간’을 다루는 SF 영화이다. 영화에서 한 어린 외계인이 길을 걷다가 ‘어미가 죽은 아기 인간’을 발견하고, 어머니 외계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집에 데려가 키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을 보며 나는 이것이 현재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과정과 다르지 않고 생각했다. 물론 같이 지내면서 감정을 공유하고 같이 지낸다는 점은 ‘반려’의 의미가 맞을 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처음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는 그렇지 못하다.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사용하던 단어인 ‘애완’이 더 맞겠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의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반쪽짜리 단어인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진정한 ‘반려동물’의 뜻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반려’의 의미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아야 한다. 마치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과정과 같이, 동물들에게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말이

안 통하는 동물과 교감하는 것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진정한 반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